

[98 JCC(예수공동체 축제: Jesus Community Celebration)]

특별새벽기도 /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11)

서로 사랑하라

[본문 요한복음 15:9-17] 하용조 목사 / 페이지수: 5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지난번에 우리는 제자의 길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을 요한복음에서는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8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제자’라고 합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금년에 우리는 ‘변화와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합니다. 고통이 올 때는 변화가 있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변화도 없습니다. 고통은 일종의 압력입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압력을 받으면 몸이 찌그러지든지, 부서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그 말씀은 압력이 되어 압력을 받은 나는 변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성격이 변하기 바랍니다. 인격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삶의 가치관이, 모든 것들이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의 끝은 성숙입니다. 변화를 잘못 받은 사람은 자멸합니다. 파멸당합니다. 그러나 껍질을 벗는 사람은 한 단계 위로 올라갑니다. 성숙해 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서로 사랑하면 제자인 것을 압니다.

세 번째, 과실을 많이 맺으면 참된 제자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진정으로 새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고 먹으며 사람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사랑의 출발 ‘자기사랑’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9~17절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되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9, 1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제자도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숙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에는 세 가지 각도가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고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 같지만, 제일 천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합니다. 자기가 밉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밤마다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등감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월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우월감과 열등감은 자기를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데서 기인합니다.

사람의 고통은 서로 비교하는데서 옵니다. 그러나 인격은 사랑할 대상이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비교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고 물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비교합니다. 여러분이 비교를 계속하고 있는 동안은 물질적 존재의 벽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의 인격이요,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라면 누구와 비료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피 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비교를 해서 남들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면 우월감을 갖고, 못하다고 생각하면 열등감을 갖습니다.

열등감의 결과는 좌절이요, 우월감의 결과는 교만입니다. 인간은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무섭게 괴롭히는 존재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축복과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한 마디가 있습니다. 제가 폐병에 걸렸을 때 휴학을 하고 인천 요양소에서 있었습니다. 그 때 저를 위문하러 김준곤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학우는 학우 자신을 미워하지 말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시오.”

사람은 얼마나 자신에게 공갈을 하고 협박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남을 용서하기 전에 자신의 실수를 용서하고 격려하십시오. 이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능력이 생깁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당신 자신의 어리석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축복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네 몸같이 ‘이웃 사랑’

두 번째, 사랑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공허한 까닭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허무한 것은 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3일만 해도 자기가 뿌듯해집니다. 사람이란 것이 제 스스로 조그마한 희생을 감당해 내었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희생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공허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늘 허공을 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병든 자를 도와주면, 도움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죽음이 오고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자도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면 그 이상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요한복음에는 L자로 시작하는 중요한 단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랑(Love)입니다. 다음은 생명(Life)입니다. 그리고 빛(Light)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말씀(Logos)이 있습니다.

이 말을 또 다시 한 마디로 정리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생명이 피어납니다. 사랑하면 병도 낫습니다.

저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이기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사랑의 전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은 ‘산다’는 말입니다. 주소를 옮기지 않고 사는 곳은 잠깐 사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면 동사무소에 가서 주소를 이전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집에서 산다고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관이나 호텔에 묵을 수 있습니다. 그곳은 잠깐 머무는 곳입니다. 이와 같이 잠시 여관이나 호텔에 머무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거한다’는 말은 마치 결혼을 하면 여자가 남자의 호적에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순종’

사랑하는 방법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

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당연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거절할 수 있는 인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동일한 예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떠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여야 한다는 기막힌 신앙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이삭에게 너를 죽여야 한다고 말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삭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는 여기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라는 말만하고 묵묵히 걸어갑니다.

이삭의 훌륭한 점은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몸부림도 치지 않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순종입니다.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말씀한 것을 지키는 것이 부모사랑 아닙니까? 보이지 않을 때도 부모가 한 말을 지키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말씀은 씨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살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QT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일대일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제자도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말씀은 음식과 같습니다. 기도는 공기와 같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 니라』

계명을 지키면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속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기쁨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기쁨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수입만 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만 기쁨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쁨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참 기쁨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을 얻고 싶으면 사랑하십시오.

불편한 것이 불행이 아닙니다. 편안한 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불편한 것을 싫어

하고 편안하고 쉬운 것을 좋아합니다.

현대문명이 발전하면 할수록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쉽고 편하게 만들수록 그 안에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쉽고 편하게 만들수록 사람은 불행해 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저는 크고 깨끗한 줄은 집에 많이 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복지수와 비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이 잘 되었다고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예수가 있어야 행복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계명을 지키면 행복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속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줄 알리라

내 계명은 저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계명대로 살면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리라 참 기쁨을 주리라

혈벗고 굶주려도 얻는 기쁨, 허름한 집에 살아도 생기는 기쁨, 세상에서 이리저리 밀려도 생기는 기쁨, 이런 기쁨을 성도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 추운 겨울 금식하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환란과 위기를 맞이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옵소서.

주여,

금년에 우리는 변화되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어린이같이 떼쓰지 않게 하시고, 나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기심과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희생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대가를 치르면서도 이웃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출처 : 온누리신문**